

AI전략위원회, 초거대 AI 협의회 소속 기업 대상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 간담회 개최

-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2월 23일 (화) 산업 AX·생태계 분과 주관으로 「국가 인공지능 행동계획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조준희 산업 AX·생태계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분과 위원, 네이버 클라우드·KT 등 초거대 AI 협의회 소속 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 15일 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특히 국가 AI 12대 전략과제 중 산업 AX 분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 산업별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제조 AI 2030 전략」, AI 바우처를 통한 LLM·에이전트 시장 창출, AI 풀스택 수출 전략 등

참석 기업들은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혁신의 동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에이전트, 산업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실증 기회 확대와 민·관 협업 구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 공정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풀스택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준희 분과위원장은 “현장의 기업들은 산업 AX를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파트너이며, 국가 AI 행동계획은 단순히 정부의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실제 활용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위원회는 향후 행동계획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AI 기술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산업팀	책임자	팀 장	문경준 (02-2224-4151)
		담당자	사무관	김경배 (02-2224-4152)

